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Young Adults' Perceptions of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유계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정현숙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Yoo, Gye-Sook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hung, Hyun-Sook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It also ve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by young adults. The sample population included 311 university students. Our findings show that young adults perceived parenthood variously as a personal lifestyle, and as an statement of social maturation and sound mind and of marital satisfac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by gender in their perceptions on the meaning of parenthood. As for the motivation to become parents, strengthening biological family ties, traditional norms, emotional and altruistic reasons, deepening marital bonds, and perpetuating one's self through the passing on of genes. Among these, altruistic-emotional motivation and marital cohesion were stronger than other motivations. Finally, we provid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 주요어(Key words) : 부모됨(Parenthood), 부모됨의 의미(Meanings of Parenthood), 부모됨의 동기(Motivation of Parenthood), 청년기(Young Adulthood)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우려할 만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출생 사망 통계 결과'에 의하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출산율)는 1.47명으로 전 세계 평균 1.53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출산 수준은 인구 대체 수준인 가임 여성 1인당 일생 2명의 자녀 출산을 밀돌면서 인구 성장률이 매우 낮은 선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

녀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성원들의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저 출산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됨을 선택하는 주체인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와 동기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부모교육이나 가족발달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부모됨이나 부모기(parenthood)가 임신을 전후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모됨이 임신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부모됨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포괄적인 개념의 부모됨은 임신과 자녀출산보다 훨씬 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self image)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 주저자 : 유계숙(E-mail : dongrazi@yahoo.co.kr)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소꿉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이 부모역할을 나누어 맡고 아기를 상징하는 인형으로 극놀이를 하는 것과 같이 부모로서의 지위 획득에 대한 소망과 상상이 일어날 때부터 이미 부모됨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편, 1997). 특히 인간의 발달단계 중 신체적·성적 성숙과 추상적 사고의 발달이 현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모나 또래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청년 후기는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미래에 담당할 역할을 수용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청년 후기는 추상적 사고를 통하여 시간적 조망이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는 시기로서 청년들은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해 보는 탐색을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간다(조복희·정옥분·유가효, 1997).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들은 점차 부모가 될 주체로서 자신의 관점, 동기, 능력, 흥미 등을 점검하고, 이상적인 부모상과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처럼 개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함으로써 부모가 되는 이전의 시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부모됨이 이루어지며, 이때 형성된 부모됨의 의미는 이후 실제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편, 1997).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인지적 과정과 의미가 갖는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공유되는 사회적 의미와 상징의 학습을 통하여 특정 역할에 대한 자기의미인 정체성(identities)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의식적 사고와 인지적 의미는 개인의 역할 수행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부모됨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형성하며, 부모됨의 동기 와 준비는 이후 그들로 하여금 부모역할의 책임과 부담을 수용하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된 후의 적응을 도움으로써 부모됨의 선택과 부모역할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혼기 부부처럼 부모됨을 목전(目前)에 두고 실질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연구대상보다 생활 방식의 선택으로서 결혼과 부모됨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부모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부모됨의 의미, 부모됨의 동기, 자녀의 가치, 부모역할 개념 등 관련 제 변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하지 않은 채 연구에 혼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명시하는 부모됨의 의미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선택과 관계없이 부모됨에 대하여 각자가 내리는 주관적 정의를 뜻한다. 이처럼 부모됨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개인은 그 의미에 근거하여 부모됨을 선택하는 동기를 형성한다. 또한 자녀의 가치는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동의와 반대, 즉 부모됨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의 하나(Jacobsen & Binger, 1991)라

는 점에서 부모됨의 동기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역할 개념은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후 자녀출산 이후의 양육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뜻한다. 따라서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하고, 부모역할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점은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관한 국내 연구가 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모됨의 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요인들이란 곧 이론변수로서 이론구조의 구축에 사용되는 변수이다. 그런데 이론변수들간의 관계는 상호관련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논의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이론적 맥락 속에서 신중히 고려되어 추출되는 요인들이라면 각 요인간 상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각회전을 통하여 자료 속의 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현실에 근접한 요인구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이순목, 1995). 끝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됨의 의미에 선택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선택으로서의 부모됨의 의미를 수용하고, 청년 후기의 대학생들이 부모됨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됨의 의미

각 사회마다 이상적인 역할이 존재하며,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역할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Bigner, 1985). 사회의 성원들은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당연시하며, 개인이 성장해감에 따라 그러한 역할들은 그의 인성이나 사고, 행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됨이란 이러한 이상적인 역할들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됨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는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압력은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부과된다. Nock(1987)에 따르면, 여성이 어머니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출산과 양육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직접적·기회 비용보다 남녀관계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과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의 역할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한편 남성들은 아버지됨이 성인 남성으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친밀감과 돌봄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성인기의 새로운 측면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Lupton & Barclay, 1997).

Veevers(1973)는 부모기(parenthood)의 사회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녀 출산이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사회 성

원을 충원하는 시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예: DINK족)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셋째, 부모가 되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넷째, 성인 남녀는 자녀 출산을 통하여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성인이라는 성 정체성(sexual identity)을 획득한다. 다섯째, 자녀 출산과 더불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감소하고 결혼 생활에 스트레스가 야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녀가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고,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며, 이혼을 방지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자녀들이 반드시 결혼 생활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로 인하여 부부 관계가 연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커플들은 결혼 생활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이를 갖는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자녀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사람보다 정상적이라고 간주된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남성보다도 여성의 역할을 더 완전하게 해 주는 의미가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 계층, 교육 수준, 가치관 등 개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부모기의 의미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달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성인기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여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지만,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면서 부모됨의 의미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 부모됨의 의미를 자녀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부모가 된 성인들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며, 폭력, 약물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정서적 관여가 더욱 더 요구된다. 또한 자녀가 생김으로써 부모들은 이전의 사회 생활과 여가 등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상당 부분 재조정하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과거보다 거세지면서 최근에는 자녀 갖기를 연기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식량과 자원의 수급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산아제한을 이용해왔으나,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됨을 결정하는 시대에 살고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과 효과적인 피임방법(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하여)은 부모가 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갖는 시기와 자녀수에 대한 결정까지도 용이하게 해준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맞벌이가 증가하고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녀수를 줄이고 임신시기를 늦추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초혼 연령이 상승하고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모됨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며, 자신에게 적합한 자녀출산의 시기도 자유롭게 조정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를 형성함으로써 당사자인 (예비)부모의 인생 뿐 아니라 그들이 살고있는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발달과업으로 삼고있는 청년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부모됨의 동기

부모됨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수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가 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러한 대가를 능가한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됨을 선택한다.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문제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지지해줄 만한 근거를 찾게되는데, 예컨대 자녀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 관계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주고, 부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인의 지위를 부여해주며, 부모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 그리고 가계 계승을 통한 영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는 등 자신이 부모됨을 선택한 동기를 파악한다. 개인은 성인기에 접어들면 Erikson(1950)이 주장한 성인기의 생산성(generativity) 개념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부모됨의 동기는 자녀를 갖기 이전에 형성되어 부모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Bigner, 1985).

Kirchner와 Seaver(1977)는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긍정적·부정적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모됨의 동기 질문지(The Parenthood Motivation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 질문지에 제시된 부모됨을 선택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에는 영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기억 및 재경험, 노후보장, 파트너와의 유대감, 양육을 통한 역할 수행, 성역할 수행, 자극과 자부심 획득, 개인적 성장의 기회,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 실용주의와 규범적 행동, 재미 등이 포함된다. 반면 부모됨을 꺼리게 하는 부정적 동기로는 사회적·개인적 제약,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회의, 장애아를 낳을 가능성, 비판적인 세계관, 재정적 문제,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임신의 불편함, 인구문제에 대한 우려, 정서적 미숙, 교육 및 직업상의 제약, 출산위험 등이 포함된다. 한편 Hoffman(1978), Jacobsen과 Binger(1991)에 의하면, 부모됨의 동기는 전통, 부모로서의 만족감, 역할 수행, 사회적 지위 획득, 애정, 자녀로부터의 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자녀의 가치 척도(The Value of Children Scales)'를 개발한 Arnold와 Fawcett(1975)에 따르면, 부모됨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유형, 즉 연속성·전통·안전의 동기, 부모기의 만족감 및 자녀로부터 얻는 성취감의 동기, 부모기의 역할 동기, 자녀로부터 얻는 행복감 및 애정의 동기,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의 동기,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의 동기

구분된다.

Rabin과 Greene(1968)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녀를 갖는 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운명론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부모가 되고자 하며, 피임을 죄악시한다. 운명론자들이 부모가 되는 또 다른 동기는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자녀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동기는 사람들이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둘째,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비이기적인 바람과 욕구에 의하여 부모가 되는 사람들은 이타주의자이며, 이들의 동기는 Erikson(1950)의 생산성 개념과 매우 흡사하다. 셋째, 자신이 선호하며, 자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할 만큼 성숙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녀를 갖는 사람들은 자기애적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못다 이룬 목표를 자녀로 하여금 대신 달성토록 하기 위해, 혹은 결혼을 하기 위한 방편이나 부부간의 갈등 및 문제 해소를 위해 자녀를 갖는 도구적 동기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부모에게 손자를 안겨드리기 위해 혹은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도 도구적 동기에 속한다.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손자를 보아 조부모가 됨으로써 노년기에 자신과 닮은 대상이 존재하기를 바란다. 남성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남성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가 되는 것 역시 도구적 동기에 해당한다.

Lackovic-Grgin과 Vitez(1997)는 이러한 네 가지 동기의 유형론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 운명론적·이타적·자기애적 동기는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되나, 도구적 동기는 자아확인, 가계계승, 결혼의 안정성 확보, 애국심의 네 가지 하위 요인들로 세분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부모됨의 동기를 예측해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상호성 지향이나 돌봄과 같은 여성적 본능은 네 가지 동기를 모두 잘 예측해주며, 성별은 운명론적·도구적 동기를, 교육수준과 연령은 이타적 동기를, 그리고 외향성은 운명론적 동기를 잘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Gerson과 Berman(1991)이 Kirchner와 Seaver(1977)의 '부모됨의 동기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는 20, 30대의 남녀 188명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30대보다 20대가 높았으며, 여성들은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의미의 경험이나 자극과 자부심 획득과 같이 긍정적 동기를 가치 있게 인식한 반면, 남성들은 출산의 위험, 사회적·개인적 제약,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 등 부정적 동기를 중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남녀 대학생들의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본 Morahan-Martin(1991)의 연구 결과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연속성·전통·안전의 동기, 부모의 역할 동기,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목표 및 인센티브의 동기, 부모됨을 통한 사회적 지위 획득의 동기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의 부모관이 여학생들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Gerson(1986)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성의 자기애, 자존감, 부성에

(父性愛)에 대한 기억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어머니됨의 동기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됨의 동기는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나 부모됨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대인관계적·인구학적·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Bell, Bancroft, & Philip, 1985), 부모됨을 보상으로 지각하는 것은 부모됨을 선택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Jensen, Christensen, & Wilson, 1985).

현재까지 부모됨의 의미나 동기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부모됨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성별 선호와 임신 동기간의 관계를 조사한 박경애(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신부들의 임신 동기는 경제적,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가계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사의 조력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한편 유안진과 김연진(1987)은 부모가 되려는 일반적 동기를 부모로서의 사회적 지위 획득, 자기확충 또는 자아확보감, 애정의 충족, 정서적 안정, 운명적 동기, 가계계승의 동기의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유안진과 신양재(1993)는 서울, 인천, 춘천 지역의 46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동기를 조사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즉, 부모됨을 통하여 성인 정체감이나 부부 및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위 요인, 삶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연장, 실현하고자 하는 자기연장 요인, 자녀출산, 성장을 통해서 창조와 성취감을 갖고자 하는 창조·성취감 요인, 집안이나 사회의 존속, 계승을 위한 전통성 요인, 자녀를 통해서 혈연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일차적 집단 유대감 요인 등 5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각 요인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창조·성취감 요인이 가장 높고, 사회적 지위 요인이 가장 낮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사회적 압력이나 지위 때문에 부모가 되기보다는 개인·심리적 동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위 요인, 자기연장 요인, 전통성 요인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요시하는 반면, 창조·성취감 요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중요시함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청년들이 부모됨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러한 과정은 부모됨을 선택하는 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 대학교에 재학중인 18~28세의 남녀 대학생 311명(남 84명, 여 225명)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관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평균 연령은 만 20.02세이며, 연구대상 대부분은 부모가 생존해있고, 초혼가족 출신으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87.5%이며, 어머니가 고졸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76.2%이고, 어

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는 전체의 59.6%이다. 연구대상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79.7%가 중류층이라고 응답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부모됨의 의미 척도는 Lupton과 Barclay(1997), Veevers(1973)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8개의 문항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라고 생각한다”의 8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2이다(표 2 참조). 부모됨의 동기 척도는 Arnold와 Fawcett(1975), Kirchner와 Seaver(1977), Rabin과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N=311)

사회인구학적 특징		평균 (표준편차)	빈도(%)
성별	남자 / 여자		84(27.0) / 225(72.3)
	연령(세)	20.02(1.99)	
출생순위	첫째 / 차자 이하 / 외동		147(47.3) / 145(46.6) / 16(5.1)
부모 생존여부	부 생존 / 부 사망		298(95.8) / 11(3.5)
	모 생존 / 모 사망		307(98.7) / 1(0.3)
부모의 연령(세)	부 연령	50.78(4.47)	
	모 연령	47.30(4.12)	
부 / 모의 결혼상태	초혼		297(95.5) / 298(95.8)
	재혼		5(1.6) / 3(1.0)
	이혼		2(0.6) / 3(1.0)
	사별		3(1.0) / 1(0.3)
부모와 동거 여부	동거 / 비동거		274(88.1) / 35(11.3)
부 / 모의 학력	중졸 이하		37(11.9) / 72(23.2)
	고졸 및 전문대졸		138(44.4) / 167(53.7)
	대졸 이상		134(43.1) / 70(22.5)
부의 직업	전문직·행정관리 / 비전문직 / 무직·실직		128(41.2) / 158(50.8) / 14(4.5)
모의 직업	전문직·행정관리 / 비전문직 / 전업주부		22(7.1) / 93(29.9) / 185(59.5)
생활수준 및 월수입(만원)	상 / 중 / 하	295.15 (172.16)	38(12.2) / 248(79.7) / 22(7.1)

* 결측치에 의하여 전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 부모됨의 의미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N=311)

부모됨의 의미	통계값	평균(표준편차)				t값	Cronbach's α
		전체	순위	남자	여자		
도덕성의 실천		3.02(.93)	5	3.06(.95)	3.00(.93)	.54	.72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행		2.75(.92)	7	2.74(1.02)	2.76(.88)	-.19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3.26(.82)	4	3.31(.89)	3.24(.80)	.62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2.79(.96)	6	2.80(1.00)	2.79(.95)	.09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		2.79(.92)	6	2.74(.95)	2.80(.91)	-.57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3.32(.96)	3	3.36(.99)	3.31(.95)	.41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		3.55(.93)	2	3.38(.99)	3.60(.91)	-1.88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		4.17(.91)	1	4.04(.94)	4.21(.90)	-1.53	

Greene(1968)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5점 척도 문항으로 “나는 ... 때문에 자녀를 갖고 싶다”의 2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청년의 인식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청년의 전반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덟 가지 의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들이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는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행’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은 8개 영역 모두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유의한 성차를 발견할 수 없었다.

2.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모됨의 동기 척도를 구성하는 21개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요인부하량이 0.3보다 적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파업이나 낙태로 생명의 창조를 간섭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자녀를 가질 것이다’)을 제외한 20개 문항으로부터 요인을 추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됨의 동기는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요인 I), 전통적·규범적 동기(요인 II), 이타적·정서적 동기(요인 III), 부부결속적 동기(요인 IV), 영속적 동기(요인 V)로 구분되며, 이들 5개 요인은 변량의 약 59%를 설명해준다. 각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전통적 가족이념과 관련된 부모됨의 동기인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요인I)와 전통적·규범적 동기(요인II) 및 영속적 동기(요인 V)는 이타적·정서적 동기(요인 III) 및 부부결속적 동기(요인 IV)와 부적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요인간의 상관은 낮은 수준으로 상호 독립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3> 회전(OBLIMIN rotation) 후 부모됨의 동기(N=311)

부모됨의 동기 문항	요인 부하값					h ²
	I.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II. 전통적·규범적 동기	III. 이타적·정서적 동기	IV. 부부결속적 동기	V. 영속적 동기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88	.18	-.24	-.28	.11	.79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서	.85	.18	-.23	-.12	.19	.74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52	.43	-.42	-.22	.11	.43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야 성인대접을 받기 때문에	.14	.75	-.22	-.44	.26	.62
출산으로 나의 가입 능력과 신체적 성숙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31	.71	-.35	-.24	.18	.55
부모가 되면 나의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26	.71	-.25	.01	.22	.61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갖듯이 보통사람으로 부모가 되려고	.08	.68	-.16	-.31	.16	.48
자녀가 없으면 인생이 적막하고 노후 기댈 곳이 없으므로	.07	.52	-.17	-.50	.12	.40
자녀양육을 통하여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기 위해	.40	.42	-.23	-.36	.11	.33
인생에서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이므로	.20	.18	-.80	-.34	.23	.69
부모역할을 통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21	.26	-.77	-.21	.20	.62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31	.20	-.77	-.21	.06	.60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친구로서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00	.43	-.57	-.28	-.29	.60
나의 부모님과 같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54	.24	-.57	-.26	-.08	.51
자녀를 통해 배우자와 가까워지고 인생목표와 경험을 공유하려고	.41	.20	-.34	-.81	.16	.74
자녀는 결혼생활의 활력소로 이혼을 방지하기 때문에	.07	.39	-.28	-.79	.20	.66
나와 배우자의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39	.22	-.45	-.73	.22	.66
가계계승과 상속을 위해	.07	.38	-.18	-.26	.80	.72
나의 분신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38	.22	-.43	-.22	.70	.68
자녀가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우므로	.03	.38	-.13	-.42	.46	.38
고유값	6.03	1.84	1.47	1.30	1.16	Σh^2
전체변량(%)	30.2	9.2	7.4	6.5	5.8	II
누가변량(%)	30.2	39.4	46.8	53.3	59.1	11.81
공통변량(%)	51.1	15.6	12.5	11.0	9.8	
요인간 상관계수	요인 I	1.00				
	요인 II	.17	1.00			
	요인 III	-.30	-.28	1.00		
	요인 IV	-.17	-.32	.28	1.00	
	요인 V	.11	.18	-.09	-.16	1.00

이상의 요인들에 근거한 다섯 가지 부모됨의 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청년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의미 있고, 위안이 되며, 개인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타적·정서적 동기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부모됨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결혼생활의 활력소라고 생각하는 부부결속적 동기도 높게 평가하였다. 다섯 가지 부모됨의 동기 중 영속적 동기를 제외하고 남녀간의 인식 차이는 없었으며, 부모됨의 영속적 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속적 동기수준은 남자는 평균 2.81, 여자는 평균이 2.51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3.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년들이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가 부모됨을 선택하는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부모됨의 의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 팽창계수(VIF)가 1.02~1.63으로 다중공선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표 5>에 의하면, 부모됨의 의미변인들이 부모됨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됨의 동기에 따라 다양하며 부모됨의 동기 변량의 11%~32%를 설명한다. 독립변인들에 의해 혈연적 유대 강화동기 변량의 11%가 설명되며,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규범적 동기의 32%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며,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결혼의 의미부여',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변인의 점수가 영향을 미친다. 부모됨의 의미변인들이 이타적·정서적 동기 변량의 26%를 설명하며 '도덕성의 실천',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의 부모됨의 의미가 영향을 미친다. 부부결속력 동기는 '도덕성의 실천'변인과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의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영속적 동기는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능력확인' 의미와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다.

다섯 가지 부모됨의 동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됨의 의미는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이다. 즉,

<표 4> 부모됨의 동기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N=311)

부모됨의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영속적 동기
통계값	평균	2.98(.87)	2.45(.65)	3.59(.71)	3.40(.86)	2.59(.80)
	(표준편차)					
	전체	2.98(.87)	2.45(.65)	3.59(.71)	3.40(.86)	2.59(.80)
	남자	3.12(.90)	2.45(.67)	3.53(.78)	3.49(.84)	2.81(.93)
	여자	2.93(.86)	2.45(.65)	3.62(.68)	3.37(.87)	2.51(.73)
	t값	1.70	.07	-.99	1.08	2.62*
	Cronbach's α	.72	.74	.76	.78	.61

* p < .05

<표 5>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N=311)

독립변인: 부모됨의 의미	종속변인: 부모됨의 동기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전통적·규범적 동기	이타적·정서적 동기	부부결속적 동기	영속적 동기	VIF
도덕성의 실천	.05(.05)	.08(.11)	.11(.15)*	.16(.18)**	.03(.04)	1.49
시민으로서의 책임 수행	.03(.03)	.02(.02)	-.03(-.04)	.07(.07)	.08(.09)	1.56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04(-.04)	-.01(-.01)	.13(.16)**	-.09(-.09)	.05(.05)	1.38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	.15(.16)*	.17(.25)***	.01(.01)	.07(.08)	.14(.17)*	1.63
누군가를 돌봐주려는 이타적 욕구	-.08(-.08)	-.00(-.00)	.05(.06)	-.06(-.06)	-.03(-.04)	1.37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	.18(.20)**	.16(.24)***	.13(.17)**	.38(.42)***	.20(.24)***	1.55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	.05(.05)	.08(.12)	.17(.22)***	.03(.03)	-.02(-.03)	1.54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	-.04(-.04)	-.11(-.15)**	.04(.05)	-.04(-.04)	-.07(-.08)	1.02
상수	2.05	1.37	1.58	1.79	1.57	
R ² (Adj R ²)	.11(.09)	.32(.31)	.26(.24)	.30(.28)	.17(.15)	
F	4.82***	17.99***	13.49***	16.21***	7.82***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출산이 부부관계의 유대와 결혼생활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됨의 동기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은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 영속적 동기 및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 및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 상태'는 이타적·정서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부모됨을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지각할수록 부모됨의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낮게 나타나며, 부모됨을 '도덕성의 실천'이라고 생각할수록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적 동기의 수준이 높다.

V. 논의 및 결론

부모됨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기를 대상으로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를 함께 고려하지 않았으며, 부모됨의 의미나 동기 등 관련 개념들이 명확하게 정의, 구분되지 않은 채 연구에서 혼용되는 경향을 보였고, 부모됨의 동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간의 상호관련성이 배제되었다는 점들이 제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청년 후기의 대학생들이 부모됨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와 동기를 부여하며,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내용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대학생들이 응답한 부모됨의 의미는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성숙과 건강한 정신상태',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 만족 표시'의 의미를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부모됨의 여덟 가지 의미 모두에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결혼에 대한 관점이 결혼의 상호보호와 만족에 대한 차원이 점차 강조되고,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결혼의 기반이라고 지적한 Browning(2000)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관에서는 선택으로서의 결혼 개념이 강조되며, 부모됨 역시 개인이 선택하는 생활방식으로서의 개념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결혼관과 부모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됨의 의미에서 남녀간의 인식 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들과 부모세대간의 결혼관의 차이를 보면, 부모세대는 부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결혼의 동기로 지적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은 사랑과 애정을 가장 주요한 결혼의 의미로 인식하여 결혼이 과거와 같이 자녀출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 2002).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에서 부모됨의 의미가 부모됨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으

로서의 부모됨의 의미가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됨의 의미나 동기에 대한 청년기의 태도가 이후의 자녀출산 및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가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중단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자세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청년기의 인식은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고,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안진과 신양재(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은 부모됨을 선택하는 동기로서 개인·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됨의 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전통적·규범적 동기는 이타적·정서적 동기 및 부부결속적 동기와 부적인 상관을 보임으로써 전통적 규범에 의해서 부모됨을 선택하는 청년들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정서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이 부모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부결속적 동기를 중시하는 경향은 대학생들의 부모관에 결혼에 대한 신화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 부모됨의 동기 중 영속적 동기를 제외하고 남녀간의 유의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의 부모관이 여학생보다 보수적이라는 Morahan-Martin(1991)의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것으로, 연구 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문화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보다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중단적 연구와 비교문화적인 추후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부모됨의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에 여러 가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년들은 부모됨이 부부관계의 유대와 결혼만족을 높여준다고 생각할수록 부모됨의 동기의 하위요인들 모두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됨에 부여하는 여덟 가지 의미 중 청년들이 가장 높게 지각한 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방식'이었으며, 이러한 의미는 부모됨의 동기 중 전통적·규범적 동기에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모됨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의하여 부모됨을 선택하는 경향은 낮았다. 한편 부모됨에 '성정체성 수용 및 성적 능력 확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할수록 혈연적 유대강화 동기와 영속적 동기 및 전통적·규범적 동기에 의하여 부모됨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부모됨을 '성인에게 기대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지각할수록 부모됨의 이타적·정서적 동기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됨을 '도덕성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이타적·정서적 동기와 부부결속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개인이 부모됨에 부여하는 의미는 부모됨의 다양한 동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를 갖기 훨씬 전부터 부모됨과 자녀양육에 적어도 어떤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하며, 결혼한 부부들은 자녀를 가지려는 결단에 앞서

부모됨에 대한 자신의 의미, 생각, 흥미, 동기, 준비도 등을 점검해야 한다(이은화·김영옥, 1999)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며, 부모됨을 다양한 결혼의 의미와 관련시켜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와 자발적 무자녀 선택이 점차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부모됨의 의미에 선택의 개념을 반영하였으며,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부모됨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모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됨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간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접수 일 : 2002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0일

【참 고 문 헌】

박경애(1992). 임신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 25-34.

유안진·김연진(1987). *부모교육*. 서울: 정민사.

유안진·신양재(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이순목(1995).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이은화·김영옥(1999).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동문사.

정현숙·유계숙·어주경·전혜정·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조복희·정옥분·유가효(1997). *인간발달: 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한국부모교육학회 편(1997). *부모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Arnold, F. & Fawcett, J.T.(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Vol. 3). Honolulu, Hawaii: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Bell, J.S., Bancroft, J., & Philip, A.(1985). Motivation for parenthood: A factor analytic study of attitudes towards having childre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6(1), 111-119.

Bigner, J.J.(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Browing, D.(2000). *What is marriage? An exploration*. (www.uchicago.edu/divinity/family).

Erikson, E.(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Gerson, M.J.(1986). The prospect of parenthood for women and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0(1), 49-62.

Gerson, J.J. & Berman, L.S.(1991).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s an aspect of adult develop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2(3), 327.

Hoffman, L.W.(1978).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opulation* 1, 91-131.

Jacobsen, R.B. & Binger, J.J.(1991). Black versus white single parents and the value of children. *Journal of Black Studies* 21(3), 302-312.

Jensen, L.C., Christensen, R., & Wilson, D.J.(1985). Predicting young women's role preference for parenting and work. *Sex Roles* 13, 507-514.

Kirchner, E.P. & Seaver, B.(197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Lackovic-Grgin, K. & Vitez, S.(1997). The prediction of Rabin's categories of motivation for parenthood. *Sociologije I Pedagogije* 36(13), 43-62.

Lupton, D. & Barclay, L.(1997). *Constructing fatherhood: Discourses and experiences*. London: Sage.

Morahan-Martin, J.(1991). Consider the children: Is parenthood being devalued? *Psychological Record* 41, 303.

Nock, S.L.(1987). The symbolic meaning of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8(4), 373-393.

Rabin, A.I. & Green, R.J.(1968). Assessing motivation for parenthood. *Journal of Psychology* 69, 39-46.

Veevers, J.E.(1973). The social meaning of parenthood. *Psychiatry* 36, 291-310.